

제12강: 중부유럽 바로크[1680~1750] 시대의 건축가

◆ 1교시: 중부 유럽의 바로크 건축

▲ 홉스 모어와 렌의 건축 양식

영국 바로크 뒤편 홉스 모어를 보겠습니다. 크게는 렌의 파생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특징이 있죠. 건물 본체는 기하학적 윤곽을 강하게 지키고 건물에서 파생되는 2차적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주출입구를 정면에 두고 나머지 면에 부 출입구를 둔다는 식으로 주변 환경과의 유기적 관계를 목적으로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857이죠. 공간 기본 개념은 렌의 것과 비슷하지요.

중앙 집중형에 건물 전체는 직사각형이고 독립원형기둥만으로 실내 골격을 짜죠. 거기에 더해서 중앙 출입구를 큰 영역으로 처리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측면과 뒷면에 부 출입구를 또 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변 환경과의 유기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홉스 모어만의 방법이지요. 이것을 좀 더 발전시켜 기본 어휘 중심으로 고전주의를 단순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절충주의로 소재를 확장했습니다. 여백과 덩어리 등 추상적 간결함을 추구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만의 특징으로 볼 수 있죠.

홉스 모어는 50채의 new church 이후에 큰 프로젝트에 관여합니다. 이것은 시작부터가 상당히 정치적인 이유에서 시작되었는데요. 결국 열 채 정도만 짓고 끝나지만 이 위원회에 참여합니다.

또한 캠브리지와 옥스퍼드의 주요 골격을 잡습니다. 이 두 건물은 여러 면으로 중요한 것인데 중세 어휘로 골격이 잡히고 바로크 때 지금의 80퍼센트 이상이 세워집니다. 지금 가보면 바로크 예술가들이 남긴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벤 부르그 이야기도 했었죠. 이 두 사람의 파트너십에 대해서도 말했죠. 벤 부르그- 홉스 모어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캐슬 하워드와 블렌하임 palace가 대표적입니다. 벤 부르그는 상당히 큰 범위에서 영국다움을 극으로 탐구하던 사람이었는데 건축에도 어느 정도 제공을 했습니다.

큰 그림은 그가 잡고 구체적인 시공은 벤 부르그가 하는 등 둘 사이의 역할 분담이 상당히 잘 되었지요. 이 두 사람은 렌 다음의 2세대에 해당되는 차이를 나타내죠.

그 영향도 렌이 대체적으로 자연과학의 영향을 받은 데에 반해 이들에 오게 되면 토마스 홉스의 철학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정적 무의식 개념. 이성에 의해서 걸러진 무의식적 상상력입니다.

이성에 대한 개념이 대륙의 데카르트 같은 개념이 아니라 상당히 경험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죠. 크게는 경험주의 철학자였죠. 존 로크나 버클리 흄 등의 경험주의 철학의 분파이죠. 물론 내부에 들어가면 많이 갈리긴 하죠,

그 중 홉스는 이성을 영국만의 경험적인 것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특히 상상력이라는 개념이 낭만주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것을 상당히 일찍 제시한 것이죠.

이미 2세대가 활약하던 시기는 18세기 초반이므로 계몽주의나 낭만주의가 발아하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홉스가 예술계에 영향을 많이 끼친 철학자인 거죠.

그럼 877, 878을 보면 평면과 앞뒤면의 정경이 있죠. 다양한 요소들의 파노라마가 있죠. 878을 보면 3분법, 5분법, 7분법이 여러 단계에 의해 진행됩니다.

윤곽을 보더라도 정육면체, 육면체, 원통형, 구, 원, 정사각형, 삼각형, 피라미드 등 다양한 윤곽을 쓰죠. 어휘도 다양합니다. 오더, 돔, 아치, 개선아치, 평지붕, 경사지붕, 피라미드지붕, rustication 등 다양한 고전주의 어휘들을 섞어 쓰면서도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죠. 홉스의 이성에 의한 무의식적 상상력 개념을 적용한 거지요.

이쯤 오게 되면 영국만의 바로크가 완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렌에 오게 되면 영국만의 바로크 공간이 창출이 되었고 이때 오게 되면 대륙과는 차별되는 영국만의 것이 창출이 되는 거죠.

▲ 중부 유럽의 바로크 시대

그 다음 중부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독일을 중심으로 동유럽까지 해당하는 지역으로 그것을 중부유럽 바로크라고 부릅니다. 중부유럽은 크게 보면 독일, 오스트리아, 보헤미아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고 시기적으로는 1680에서 1750년 사이입니다.

양식 사조로는 후기 바로크와 로코코에 해당하는 시기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신성로마제국에 남부 독일, 합스부르크 제국 크게 정치적으로 두 지역으로 나눌 수 있죠.

정치적 경향에 따라 두 지역 간의 건축 경향도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신성 로마제국은 가톨릭이 부활하면서 종교건축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이탈리아 바로크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도 구아리니와 보로미니 등의 비정형 계열 건축가들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습니

다.

동시대 후기 바로크와 로코코의 장식 양식이 더해지는 경향을 보이죠. 합스부르크 제국지역은 왕궁 중심의 세속건물들에서 중요한 작품이 나오게 되죠.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절대왕정의 궁들이 중요한 모델이 되는 겁니다.

일단 그것을 정리해 보죠. 독일 지역을 좀 더 세분해 보면 원형을 중심으로 한 남부독일과 바이헤른이 있죠. 바이헤른도 둘도 나뉘지요. 프로이센은 베를린, 보헤미아의 중심은 프라하, 오스트리아는 합스부르크 왕실이 있는 비엔나가 중심이 됩니다.

각 국가도 도시 지역으로 세분화 될 수 있고 지역마다 1640년에서 60년에 태어난 세대와 1680년에서 90년에 태어난 세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외우는 게 좋죠. 구별이 될 줄 모르겠는데 두꺼운 글씨가 중요한 건축가들입니다.

피셔, 노이만, 할데 브란트 등입니다. 이것을 크게 보면 오스트리아, 보헤미안, 독일에서 두루두루 시작이 됩니다. 8,90년대 생에 오게 되면 바바리아와 남부독일에 와서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오스트리아는 2세대에 오게 되면 칸이 비어있죠. 베를린은 북부 독일이고 이쪽도 2세대에는 비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는 1세대에 중요한 건축가들이 모여 있고 2세대는 남부 독일이죠.

이곳은 기차길로 연결된 같은 문화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목가적인 자연 풍광을 배경으로 술 먹고 시 짓고 놀기 좋아하는 거죠. 보헤미안 기질이라고 하잖아요. 직접 가보면 경치도 심각하게 고민하기에는 맞지 않죠.

페펠만은 드레스덴의 궁전을 만들죠. 그림 897입니다. 독일 지역의 이런 궁전을 레지던스라고 하죠. 여러 말로 부르는데 그 뜻은 성채라는 의미죠. 전형적인 모습이 897입니다.

가운데에 본채가 있고 팔이 뻗어 나오는 전체 구성을 이룹니다. 독일 지방의 전형적인 궁전 구성입니다. 페펠만이 초창기 예 중의 하나이지요. 보면 장식 디테일이 굉장히 많지요.

이것이 후기 바로크와 로코코의 혼합 양식인 거죠. 나머지 어휘들을 보아도 장식을 돕는 위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전 어휘의 사용은 최대한 자체되는 대신에 아치, 곡면, 경사지붕, 포인티드 아치 등으로 장식을 돕는 어휘 중심입니다.

여백도 많습니다. 장식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물결치는 것 같은 조각운곡이 있습니다. 장식과 더해서 건물과 하나로 융합시키는 독특한 처리를 보여줍니다.

보헤미아 지방에서 단체노프 가문이 대표적이지요. 이들은 체코, 헝가리 쪽의 대표적인 건축가 가문입니다. 나라마다 가문이 건축가인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가문은 다섯 형제와 그

중의 한 명의 아들로 구성된 가문이었고 상당히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보헤미아 지방의 건축을 이끌었습니다.

◆ 2교시: 남부 유럽의 바로크 건축

▲ 에를라흐의 건축 양식

그 다음 합스부르크 제국, 비엔나로 오게 되면 엘라브라는 중요한 건축가가 등장합니다. 중부 유럽의 바로크 건축가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장인들입니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장식 중심으로 건축을 합니다. 실내장식을 많이 하고 건물도 그 연장선상에서 장식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공예, 조각, 회화 등을 종합적으로 구사합니다.

건축에 대한 개념은 좀 약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독일식 종합예술이기는 합니다. 베르니니로부터 이미 나왔었지만 그 개념과는 좀 다르죠. 이탈리아의 종합예술은 건축이었고 이곳은 공예나 장식이 추가 됩니다.

이 장인들이 그룹을 이루어서 여러 지역을 오가면서 실내 장식들을 많이 남깁니다. 중부 유럽 바로크는 사진으로 보아도 화려한 실내장식이 많습니다. 건축가들이 설계를 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장식으로 작품을 남기는 경우도 많고 일부는 건물까지도 설계를 하죠.

또 하나는 고전주의 건축가형으로서 로마나 프랑스에서 건축을 배워온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진행되고 있던 고전주의 건축을 배워오는 겁니다. 고전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은 피셔 본 에를라흐 (Fischer von Erlach)입니다.

그라치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라치에는 현대 건축에서 중요한 도시입니다. 비정형의 대가들이 활약하는 곳이죠. 기질이 있는 거 같아요.

에를라흐는 로마에 유학을 해서 카를로 폰타나의 아카데미에서 그의 직계 제자가 됩니다. 당시의 로마 아카데미에서 정식으로 공부한 사람은 이 사람이 중부유럽에서 최초입니다. 특히 장인 중심의 교회 실내의 지역 기독교가 강하기 때문에 지역 정서를 바탕으로 한 장식을 잘 만들면 됩니다.

합스부르크 왕실은 상황이 좀 다르죠. 국제적으로 유럽 전체를 상대해야 하므로 건축도 국제주의적인 보편성을 가져야 합니다. 당시 고전주의 건축을 구사할 수 있는 건축가가 전무한 상태에서 로마에 유학해서 배워온 것이 유리한 것이죠.

젊은 나이에 왕실 건축가로 발탁이 됩니다. 이 사람은 그 후광을 이용한 것만이 아니라 오

스트리아에 맞는 내용들을 발명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림 909입니다. 왕궁 건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916을 보면 베르사유를 많이 흉내 낸 것을 알 수 있죠.

909를 보면 축제 개념이 가미된 왕궁 건축들, 정원 궁전이라고 불리는 개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딱딱한 정치 중심으로 진행되던 파리와는 구별이 되지요. 보헤미아 지역만의 축제적 감흥이 더해지면서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제국이 요구하는 기념비적 권위까지 동시에 만족시킨 평면 구성을 보입니다.

역사적 종합화, 바로크 절충주의를 자신만의 건축 어휘로 개발하게 됩니다. 역사적 종합화란 역사적 선례를 종합화하는 거죠. 그 대표의 예가 그림 926입니다.

전체 구성은 로마의 성 베드로를 많이 모방하죠. 실제적인 디테일을 보면 성 베드로는 출입구 처리가 마데르노의 바로크 기법인데 반해 여기는 신전 파사드를 통째로 소품화해서 집어 넣고 있습니다. 첨탑의 기단부도 어휘 변화가 심합니다.

아치도 넣고 소용돌이 문양의 바로크 지붕 처리 어휘도 있습니다. 또 기둥이 2개 있습니다. 소위 로마에서 말하는 승전기둥이라는 겁니다. 승전을 기념해서 세운 것이 두 개이죠. 개선문과 개선아치이지요.

그것을 하나도 아니고 두 개나 세웁니다. 선례 어휘를 다양화해서 확장하고 그것을 제국의 권위에 맞게 변형하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역사적 종합화를 통해서 바로크 절충주의를 추구한 예가 되는 거죠.

평면을 보면 그림 923입니다. 평면은 중앙 집중형과 선형을 적절히 혼용했습니다. 강한 중앙 집중성을 가지면서 십자축의 선형 구성을 추구합니다. 타원 등을 활용한 것은 보로미니에서 베르니니 등의 로마 바로크 건축가들이 사용하던 거지요. 십자축 방향 등의 방법은 프랑스의 루이 14세 건물 등에서 보이는 확장 개념이죠.

또한 이 사람은 교회와 궁전 모두에서 합스부르크 제국에 맞는 대표작들을 남긴 건축가입니다. 실제로 그림 916은 베르사유를 능가할 정도로 웅장하게 계획되어 졌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지어지지 못했습니다.

919는 그 실내를 표현한 거죠. 마치 베르사유의 유리의 방을 보는 것 같죠. 그것을 의식해서 웅장하게 설계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지어지지 못했죠. 건축 처리도 보면 거대기둥을 많이 썼고 제국의 권위를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이죠.

그 다음에 특히 타원을 즐겨 썼습니다. 920 보면 중앙공간에 타원 두 개를 수직 방향으로 엇갈려서 배치합니다. 전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타원을 옆으로 밀고 그것을 통과해서 중앙홀로 가면 타원이 위쪽 방향으로 서있죠.

924도 보면 타원이 중심에 들어갑니다. 타원을 중심으로 해서 확장을 하는 처리를 대표적인

경향으로 보입니다. 타원 중심의 제국 권력의 상징 표현인 겁니다.

▲ 아잠 형제의 건축 양식

남부 독일로 오면 아잠(Asam) 형제가 있지요. 이 사람들을 장인출신인데 특이하게 로마 고전주의를 동시에 배운 독특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장인 출신이므로 실내 장식에 독일 바로크식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장식을 많이 하죠. 대체적으로 장인 출신의 다른 건축가들이 화려하고 밝은 경향을 보이는 반면 이 형제의 작품들은 상당히 무겁고 색이 어둡습니다.

다 로마 고전주의의 영향입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장중하고 묵직한데요. 일반적인 중부 유럽의 건축가들과의 것과는 다르죠. 이탈리아 바로크는 로코코 영향이 거의 없죠. 아주 뒤쪽에 주바라까지 가기 전까지는요.

로코코가 상당 부분 식물 어휘를 많이 쓰므로 바로크와 구분이 되지요. 중부 유럽 바로크에 오면 로코코와 섞이면서 식물이 많이 나타나는데 반해 이들의 작품에서는 그렇지 않죠. 색이 묵직하면서 식물보다는 조각이 주를 이루죠.

또한 건축을 알았기 때문에 건축 골격 중심의 이탈리아 바로크 형식을 모방하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그것과도 다른 형식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뮌헨에 있는 937, 938입니다. 건물 외관과 실내가 모두 아잠 형제가 한 것입니다. 뮌헨을 대표하는 건물이 되었죠.

▲ 노이만의 건축 양식

계속 남부 독일을 보면 노이만(Neumann)이란 건축가가 있습니다. 중부 유럽 바로크를 대표하는 건축가를 두 명 꼽으라면 방금 본 에를라흐가 있고 남부 독일에는 노이만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활약을 했던, 중부 유럽 바로크에서 중요한 건축가입니다.

노이만의 경향을 보면 실내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구조와 장식을 분리시킵니다. 구조 위에 장식을 덧붙임으로써 구조가 갖는 물성을 제거합니다. 그러면서 빛 등을 통해 특히 여백 등을 통해서 빛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아잠 형제가 묵직하고 어두웠다면 노이만의 건물들은 그렇지 않죠. 상당히 대체적으로 밝습니다. 빛이 반사가 되면서 그 효과가 드러나죠. 구조부는 골격을 최소화하고 창 면적을 가능한 한 늘리는 등 물성을 줄이죠.

평면 유형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작은 건물은 중앙 집중형 단일 기하형태를 이용합니다. 큰 건물은 선형 공간인데요. 타원의 연속입니다. 돔식 바실리카 구성을 적용한 개념으

로 볼 수 있습니다.

타원이 3개, 네이브를 타원으로 나누고, 건물 전체 윤곽은 직사각형이 되고, 2차 공간들이 생깁니다. 네이브와 아일 사이에 2차 공간이 생기고 그것을 다시 장식으로 채웁니다.

교회에서는 자신만의 독특한 기법을 완성했고 궁전에서는 세속권력의 위용을 계단을 통해 표현합니다. 계단은 상당히 중요한 건축부위입니다. 중요한 건축가들마다 자신만의 계단 어휘가 있습니다.

전체 계단의 공간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난간의 디테일까지, 제대로 된 건축가라면 계단은 자신이 설계해야 합니다. 계단만으로 서양 건축사를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계단이 융성했던 시기가 바로크 시대와 19세기인데 둘 다 세속권력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공통점이지요.

방향을 어떻게 틀 것인가, 전체적인 공간감 등이 어우러지면서 계단의 분위기가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그림 953, 955입니다. 954 같은 경우는 카이저 자이라고 해서 황제의 방이라는 거죠.

2층에 보통 카이저 자이 위치를 합니다. 그 전형적인 것이 954이죠. 중앙 집중형 방에 벽에는 물결무늬 등의 로코코 양식을 집어넣는 거죠. 어쨌든 이것이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953, 955는 노이만이 즐겨 썼던 웅장한 계단홀입니다. 보기만 해도 웅장한 걸 알 수 있죠. 보통은 180도를 돌아 올라가는데 한 번에 꺾을 수도 있고 90도로 두 번씩 꺾이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전체 공간을 보면 상당히 큼니다. 천장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폭까지 넓어지니 전체 공간이 넓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속 권력의 권위를 계단실을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바로크에는 이렇듯 계단이 다양한 형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축제용 계단 같은 경우 곡면, 곡선 등의 비정형 형태를 많이 써서 경쾌한 분위기를 살리죠. 왕궁 건물에서는 웅장함을 통해 왕실의 권위를 나타내는데 노이만이 그 대표적인 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학기 근대 건축을 끝내겠습니다.